

특별공급 안내문

특별공급 유형별 청약자격

구분	기관추천	다자녀가구	신혼부부	생애최초	노부모부양
신청 자격	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포항, 대구광역시,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				
	특별공급은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(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함)				
	해당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자	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(태아, 입양자녀 포함)	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(혼인신고일 이후 계속 무주택 조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%이하 ·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·근로자(자영업자)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·세대구성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함 	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연속하여 부양 하고 있는 자
무주택 세대구성원				무주택 세대주	
청약통장 요건	가입기간 6개월 이상, 예치금액 이상 납입(지역별, 면적별 예치 기준금액 참조) ※ 단, 국가유공자, 장애인 제외				
지역우선 적용	거주요건 등 우선순위는 해당기관장이 정함		포항시 거주자 우선공급		
신청방법 (인터넷청약 8:00~17:30)	신청방법(인터넷청약 08:00~17:30) 인터넷 청약 신청을 원칙으로 함. 단,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견본주택 방문접수 가능 특별공급 견본주택방문 접수 시 '특별공급 구비서류'를 모두 완비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(견본주택 접수 : 10:00 ~14:00)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에서 신청가능(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)				

특별공급 유의사항

일반 (기관추천)	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,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(확정/예비)로 선정하여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기관에서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일에 청약 신청하여야 함. 해당기관 : 장애인(경북도청 장애인복지과)/국가유공자 등(보훈지청 복지과)/중소기업근로자(경북 지방중소기업청)/장기복무군인(국군복지단)
다자녀가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되나 출산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함. ■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만 인정.
신혼부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, 사업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(출산 증명서, 유산 관련 진단서, 입양관계증명서 등)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. ■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친자녀를 포함.(단,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.) ■ 재혼배우자의 친자녀(전혼 배우자의 자녀)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. 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(2018.12.11)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,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됨.(자녀가 없는 경우 2순위 자격 부여) * 경쟁 시 선정방법 : 월평균소득(우선공급 70%) - 당해지역 - 자녀수 - 추첨
노부모부양	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유주택으로 보며, 무주택기간 산정 시 피부양 직계존속 및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. (피부양자의 배우자, 신청자의 배우자 포함)
생애최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함 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% 이하 ■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자 ■ 근로자(자영업자)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■ 1순위 대상자(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) * 경쟁 시 선정방법 : 월평균소득(우선공급70%) - 당해지역 - 추첨

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.